

승랍 기산 언제부터?

조계종 승려법개정청원위 ... "사미(니)계부터 고쳐야"

94년 '개혁' 이후 비구(니)계부터 기산, 고령화 원인 지적

스님의 '나이' 인 승랍의 기산은 예비승에 해당하는 사미(니)계 수계년도부터일까, 정식스님이 되는 비구(니)계 수계년도부터일까? 조계종 승려법개정 청원추진위원회가 승려법의 '승랍기산' 조항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석사 도륜, 통도사 선원 범우, 동화사 강사 우경, 해인지 편집장 종현 스님 등 추진위원회 준비위원들은 승려법 '제5조(승랍기산) 승려의 승랍은 비구·비구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한다'는 조항을 '승랍은 사미·사미니계 수계일로 기산하되 대종화회는 비구·비구니계 수계일 순으로 한다'로 개정하기 위해 2월 7일까지 서명운동에 돌입, 관련 인터넷 카페(http://cafe.daum.net/bud95)를 개설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추진위원회 준비위원 도륜 스님은 "현 승려법에 따라 95년 이후 수

계자는 4년간 예비승의 신분으로 시작해 3급 승가고시를 마치기까지 약 15년이 걸린다"며 "이럴 경우 평균 연령이 30대 중반 인 최근 출가자는 40대 후반~50대가 돼야 스님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비현실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또 "현 승려법은 종단의 인재활용에 손실이 큰 만큼 2월 중순까지 서명을 받아 3월 임시중앙총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94년 종단개혁이후 승가의 자질 향상을 위해 '선교육 후 득도'를 원칙으로 승려법을 강화해왔다.

이에 따라 94년 이전 출가자는 승납을 득도(사미(니)계 수계) 시점부터 1년을 기산하고, 95년 이후 출가자는 구족계 수계 이후를 승랍 1년을 기산해 왔다. 이에 따라 95~98년 사이는 승랍을 가진 스님이 없는 현

상이 발생해 논란이 되어 왔다.

이와 관련 중앙총회 총무부와 간사 효민 스님은 "승단의 고령화는 젊은 신도들을 상대해야 할 포교현장의 활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종법도 불필요한 규제 보다는 열린 자세로 승단의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라고 밝혀 청원운동에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했다.

총회의원외 스님들의 법개정 청원은 처음

총회의원이 아닌 일반 스님들의 종법개정 청원운동은 조계종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이번 사례와 같이 일부 젊은 스님들의 청원운동은 종단의 의사구조가 성숙해져 가고 있는 반증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추진위는 인터넷과 교구본사, 전국 선방에서 동시에 1000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다.

중앙총회 관계자는 "그동안 스님 스스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연구 윤리와 정직성을 무시한 연구자를 같은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감싸고 보호하는 것은 명분도 없으면서 더 종교적으로도 옳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대표는 "황 교수를 지지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진상규명위원회 등을 조직하는 것은 엄정한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며 "공적인 기구인 검찰의 수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고 난 뒤 그때 가서 문제를 제기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남동우·박익순·배지선기자

1면에서 이어짐

중진 스님들은 성명서에서 "황 교수가 불교인이라 해서 일방적인 옹호를 해서는 안 되며, 전문가에게 충분한 검증과 확인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우리는 정부에 공정한 수사를 주문하며, 모든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계간 대중학술지인 <불교평론>의 주간 조성택 교수(고려대 철학과·불교학)는 <불교평론> 2005년 겨울호 권두언을 통해 "최근 불교계의 지지 입장은 '과학적 연구'에 대한 지지라기보다 불자라는 이유로 황우석 교수 개인을 지지하는 것

로 보인다는 점이 문제"라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연구 윤리와 정직성을 무시한 연구자를 같은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감싸고 보호하는 것은 명분도 없으면서 더 종교적으로도 옳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대표는 "황 교수를 지지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진상규명위원회 등을 조직하는 것은 엄정한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며 "공적인 기구인 검찰의 수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고 난 뒤 그때 가서 문제를 제기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남동우·박익순·배지선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ho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연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조계종 교구본사 "타종단 군승진출 반대 안 해"

신년하례회서 입장 밝혀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타종단의 군승진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1월 10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불기 2550년 교구본사주지연합회 신년하례회에서 군종교구주지 일련 스님이 타종단의 군승진출에 대한 문제에 대한 본사 주지스님들의 의견을 구하는 자리에서 본사주지스님들은 "타 종단

에서의 군승 진출문제는 적극 환영하나 조계종과 같이 법제화를 통해 여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조계종이 타종단과 진행해 온 군승진출논의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이 자주 만나는 자리를 가졌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종단의 문제를 논의하고 교구운영상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하고 의견을

나갔으면 한다"며 이날 행사의 성격을 밝혔다.

이어 교육원장 정화 스님도 "총무원장 스님의 재임기간 본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정책에 적극 호응해 주시길 바란다"며 각 교구 본사주지스님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해인사, 불국사, 직지사, 동화사, 고운사 등 17곳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이 참석했다.

배지선기자

포교사 자격고시 2월19일

동국대 등 전국 7곳서, LA는 18일 실시

조계종 제11회 포교사 자격고시가 2월 19일 오전 9시(국내), 18일 오후 4시(LA) 두 차례 실시된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은 동국대, 대전·충청지역은 보문고, 부산·울산·경남지역은 금정중, 대구·경북지역은 능인고, 광주·전남지역은 향림사 광주불교대학, 전북지역은 전북불교회관, 강원지역은 강릉장에 인종합복직관, 미주지역은 LA 관을사에서 치러진다.

응시자격은 조계종 사찰을 재적사찰로 정하고 신도5계(보살계) 수지 및 신도등록을 필한 사람 중 △종단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졸업(예정)자 △동국대 불교학부 개설 교과과정 중 부전공 이상 학점(20학점)을

취득한 자 △동국대 불교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불교관련학과 과정 2년 이상 수료한 자 △중앙총무기관장, 교구본사 주지, 포교원 등록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포교원 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선발돼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 등이다.

응시원서 및 매표는 신도전문교육기관이나 포교원에서 한다.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재적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등을 첨부해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시험과목은 △신도기초교육과정 교과목 및 불교일반 △신도전문교육과정 교과목(불교의 이해와 신행, 불교사의 이해, 불교문화) 등. (02)2011-1894 남동우 기자

"화합·안정 그리고 보살행을..."

조계종 중정 법전스님 신년하례식서 강조

조계종 중정 법전 스님은 새해를 맞아 스님들에게는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신도들에게는 보살행의 실천으로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교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명은 1월 10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불기 2550년 병술년 중정 법전 스님 신년하례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전 스님은 "전법교화를 위한 재반불사가 원만히 봉행되기 위해서는 특히 승단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원로대덕 스님과 종단지도자스님들은 무엇보다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신도회 대표자들을 향해서도 "불교의 근본은 자비심"이라고 전제하고 "이 땅이 불국토가 되기

위해서는 소외되거나 재난을 당한 이웃들을 돕는데 불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는 해인총림 울주 종진 스님의 통일론 독송에 따라 불전 삼배로 시작해 중정스님에 삼배, 원로 대덕스님에 삼배, 신도대 표의 대중스님에 대한 삼배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지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중정예하께서 법체를 청정히 하시고 수시로 지도해 주시길 바라며, 종단의 불사에 원로의원스님의 끊임없는 격려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하례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보성 지혜 이두 지중 초우 동춘 원명 스님, 교육원장 정화, 포교원장 도영, 중앙총회위원장 법등 스님과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참석했다.

글=조용수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학교상징 조형물도안 공모

중앙승가대 2월28일까지

중앙승가대학교가 학교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도안을 공모한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2월 28일까지 도안을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및 조감도 형태로 제작해 대학 총무처로 제출해야 한다. 또 4월 용지 기준에 각 도면을 별도제작(4매)하고, 첫 장에 도안자의 의미와 상징성을 설명해야 한다.

특히 상징물인 사자의 형상을 응용해 중앙승가대학교 교훈, 설립 이념 상징할 수 있어야 한다. 상징물 크기는 높이 5m 이내. 당선작 1편에 상금 1000만원과 가작 2편에 상금 각 200만원이 수여된다.

당선작은 3월 8일 홈페이지(www.sangha.ac.kr)에 발표. (031)980-7777 남동우 기자

의 중복지원을 막고 학사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같은 날 전형을 치른다. 삼선강원은 대중생활의 부담이 없는 도심 강원으로 경쟁률이 높다.

한편, 사미 강원들은 30기 행자교육원이 끝나는 3월 중순 신입학인을 모집한다. 조용수기자

봉축표어 31일까지 공모

조계종 총무원 행사기획팀은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표어를 1월 31일까지 공모한다.

올해 봉축표어는 △교행하는 증생을 참다운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 오신 부처님 오신 참뜻을 알리는 내용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이 같은 날로 연계하여 어린이의 순수, 천진함과 부처님 가르침을 알리는 내용 △동태대비의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 실천하는 내용 등이 담겨야 한다.

당선작에는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불자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작품은 10자 이내로 1인이 최대 2개씩 응모가능하며, 조계종 행사기획팀으로 우편이나 이메일(hhk@buddhism.or.kr)로 접수한다. (02)2011-1745. 조용수 기자

사미니강원 입방고사

동학사 등 19일, 삼선강원 25일

동학사(강주 일초) 운문사(강주 명성) 봉림사(강주 묘엄) 청암사(강주 지행) 등 조계종 사미니 강원은 불기 2550년 신입학인 모집을 위한 입방고사를 1월 19일 일제히 치른다. 삼선강원(강주 묘순)은 25일.

선발은 사미니계를 수지한 예비스님을 대상으로, 시험은 사미니 율의,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열불살기 등 4과목.

조계종 사미니 강원은 신입학인들

본사사령

이은아
 命 지방팀 영상기자
 2006년 1월 3일

대승불교 최고의 수행체계

觀 중심의 형성과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

이끌려가지 않고 이끌어가는 삶,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추고자 하는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見性を 넘어成佛로 가는 법

스스로의 인과에서 벗어나 영혼의 자유를 갈구하는 자들의 필독서 - 자재정사 정오스님

나는 어디에서 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에 대한 명료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 - 동야대학 이재기 교수

극단적 선택에서 벗어나고, 자기 업식을 제도하고, 인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김동형 행정학 박사

수련회 안내

- 서울 수련회(신년): 매달 둘째 주 토요일 ~ 수요일
- 연화사 수련회: 매달 넷째 주 주중

수련회 장소와 정확한 일정은 홈페이지(http://www.kwan.or.kr/) 또는 전화(054-682-7770)로 문의 바랍니다.

※ 위의 수행을 통해 면적정결관과 청신병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연화 TEL 02)302-8145, 054)682-7770 / FAX 054)682-8155 http://www.kwan.or.kr

●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와 선정법과의 관계 ●

| 선정 | 일선정 一禪定 | 이선정 二禪定 | 삼선정 三禪定 | 사선정 四禪定 |
|----------|---|--|---|---------------------------------|
| 여덟진로 | 중심자리를 인식하고 편안함을 세운다 | 중심분리를 통해 중심을 표현과 이연으로 나눈다 | 표면은 철벽, 이연은 텅 비워진 상태 | 철벽이 허물어져서 텅 비워졌다 |
| 근본의 일 | 안팎의 경계를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 대한다 | 표면의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에 관여되지 않는다 | 이연의 비워짐에 의지를 집중한다 | 표면의 공과 이연의 공이 합일을 이루었다 |
| 면모의 일 |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이 서로 정애가 되지 않는다 (색의식의 발현) | 의식의 일치를 이룬다 (수위의식의 발현) | 존재목적성을 설정하고 이치를 타파하며 자기사상을 갖춘다 (상위의식의 발현) |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졌다 (행의식의 발현) |
| 각성의 일 | 표면적 유희와 (색의식의 발현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각성) | 미세적 유희와 (미세명념을 제도할 수 있는 각성) | 돈독한 미세적 유희와 | 일시적 무위와 |
| 자기제도 | 장부순화 (음수연을 통한 장부순화, 중심의 편안함을 통한 장부순화) | 취추순화 (취추법에 내장된 업식의 순화) | 감비배 순화 (감비배에 내장된 업식의 순화) | 위장 소강 대강의 순화, 황정의 형성과 꼬리배순화, 책약 |
| 교류성의 확보 | 표면적으로 드러난 관계에 충실한다 | 인과적 관계의 교류를 행한다 | 교류적 관계에 입각한 교류를 행한다 | 조화적 관계에 입각한 교류를 행한다 |
| 존재목적의 실현 | 있는 그대로 본다 | 혼의식을 일깨우고 외부의식과 교류한다 | 색계뿐만이 아니라 무색계에서도 자기를 실현한다 | 조화의 성취 |
| 인식의 틀 깨기 | 경계를 대하는 아무렇지 않은 마음을 공고히 한다 (근본의 인식에 충실한다) | 중국을 자극해서 선천기를 표출시키고 그로써 중심이 철벽이 되도록 한다 | 자성의 공을 증득한다 | 오기의 조화와 무상삼세의 증득 |

※ 이화 공무번치정(無邊無定), 식무번치정(無邊無定), 무수우치정(無所有定), 비상비비상치정(非非非非定), 상수월정(受受定)에 대해서는 이름다운 세상觀 수련회(http://www.kwan.or.kr)를 참조하십시오.

태평이가 전하는 태평농 이야기

'때가 되어 갈 줄 아는 것이 깨달이고 때가 되어도 가지 않으려는 것이 사람이다. 때를 모른다는 것은 인간뿐,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순순할 줄 안다.'

이 책은 농사를 통해 자연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경상도 외딴 곳 별학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태평꾼 이영문씨가 전하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만나본다.

태평농법!!
 이것은 단순히 농사짓는 방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는 이미 태평농법을 삶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흙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 라고 주장한다. 적게 먹는 즐거움도 이야기하고 있다. 자연과 삶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사람과 자연, 아니 자연 속에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가 어찌 농사짓는 법으로 만족할 사람인가? 그에게 모든 것은 자연에서 얻을 수 없기에 외부로부터 단절당한 섬이라는 문화원에서 새로운 문명을 열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 최진룡(국립경상대학교 농대 교수)